



삼국유사인문학 유행(遊行)

월명사가 '도술가'와 '제망매가'를 지은 까닭은?

1. 불교의 생사관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갈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내세운다. 이를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합과 어머니의 임신중기가 맞는 미래의 후보들을 찾아간 내 업식이 향기 코드를 맞추어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처럼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부모가 주체가 아니라 태어날 내가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태어남[生有]-죽어감[本有]-죽음[死有]-죽음 이후[中有]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호흡과 의식과 체온이 유지될 때 비로소 생명체라고 부른다.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호흡과 체온이 유지될 때 비로소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숨을 마시고 내뿜는 즉 호흡의 과정이 존재의 가장 커다란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총 14편의 신라 향가 전해져 온다. 이들 향가 14수는 형식면과 내용면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형식면으로는 4구체·8구체·10구체로 나뉠 수 있다. (도표 참조)

여기서 '구'는 '줄' 혹은 '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구체인 「서동요」·「풍요」·「한화가」·「도술가」는 구절이 단 4구나 8구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8구체인 「모죽지랑가」·「월가」·「처용가」는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형식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0구체인 「해성가」·「원왕생가」·「제망매가」·「찬기파랑가」·「안민가」·「도천수대비가」·「우적가」·「보현심원가」는 향가 중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평가된다. 이들 10구체는 대체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격조 높은 서정시이며 기교나 서정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들 14편의 작자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는 각각 두 편씩을 남기고 있는 월명사와 총담사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풍류 가객으로 불렸던 월명사는 피리를 잘 부른 풍류인이었다. 어느 날 달밤에 문 앞의 큰 길을 지나다가 피리

를 불자 하늘의 달이 달려와 그를 위해 멈추어 섰다고 전한다.

월명의 저술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가 지은 「도술가」와 「제망매가」 두 편의 향가만이 남아 있다. 월명의 「도술가」에는 그의 법력 혹은 가풍이 투영되어 있다. 그는 경덕왕에게 불려와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은 두 해」를 물리치도록 명을 받았다. 월명은 단을 세우고 기도문을 지은 뒤 「신승은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향가만 알 뿐 범성(梵聲)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고 아뢰었다. 왕은 "이미 인연 있는 승려를 불렀으니 비록 향가라 할지라도 좋다"고 하였다. 월명이 「도술가」를 지어 부르자 "이윽고 두 해의 번교가 사라졌다" [既而日怪即滅]. 왕이 기뻐하자 차 한 상자와 수정염주 백발 개를 하사하였다.

2. 주술학적 성격의 향가들

종래 일부 연구에서는 '두 해'를 경덕왕 당시 신중(信忠) 등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김양상(金良相)을 중심으로 한 반왕당파의 갈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해' 그 자체를 놓고만 보면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승려나도인 월명에게 두 왕당파의 물리적 충돌을 해결할 힘이 있었을 리 만무한데도 그를 불려 물리치게 했다는 점에서 보면 실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월명이 주술적 치유에 의해 두 해를 물리쳤다는 점은 정치적 해석으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 대해 살펴보자. "오늘이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 너는/ 곧은 마음의 부림이니/ 미륵좌주를 모셔라." 이 시를 두고 종래 연구에서는 "머리구의 산화장량(散花唱良)은 본가(本歌)가 「산화가」로서 지어진 것을 말한다. 요컨대 산화가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노래가 있었다"고 하여 이 「도술가」를 「산화가」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도술가」와 「산화가」를 분리해 왔다. 「도술」이란 말은 '도살'의 의미인 '회생(回生)', '복원(復元)', '환생(還生)', '재활(再活)'의 뜻이며, 「도술가」는 유리왕대의 것이나, 월명왕대

(도표1) 신라 가요 목록

번호	작품명	작가	창작연대	형식	출전 조목	표기
1	서동요 西東謠	瞿童	진평왕대	4구체	武王	향찰
2	해성가 解聲歌	融天師	진평왕대	10구체	融天師 慧星歌	향찰
3	풍요風謠	未詳	선덕왕대	4구체	良志使錫	향찰
4	원왕생가 願往生歌	廣德?	문무왕대	10구체	廣德 嚴莊	향찰
5	모죽지랑가 慕竹旨郎歌	得鳥谷	효소왕대	8구체	孝昭王 竹旨郎	향찰
6	한화가 憾花歌	失名老翁	성덕왕대	4구체	水路夫人	향찰
7	원가 怨歌	信忠	효성왕대	8구체	信忠掛冠	향찰
8	제망매가 祭亡妹歌	月明師	경덕왕대	10구체	月明師 兜率歌	향찰
9	도술가 兜率歌	月明師	경덕왕대	4구체	月明師 兜率歌	향찰
10	찬기파랑가 贊耆婆郎歌	忠談師	경덕왕대	10구체	景德王 忠談師	향찰
11	안민가 安民歌	忠談師	경덕왕대	10구체	景德王 忠談師	향찰
12	도천수대비가 道天手大悲歌	希明	경덕왕대	10구체	芥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향찰
13	우적가 遇賊歌	永才	원성왕대	10구체	永才 遇賊	향찰
14	처용가 處容歌	處容	현강왕대	8구체	處容郎 望海寺	향찰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사천왕사는 경덕왕 때 향기인 '도술가',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이 머물렀던 곳이다. 신라인들은 경주 낭산(狼山)을 수미산으로 보고 그 중턱은 사천왕이 지키며 꼭대기에는 부처의 나라인 도리천이 있어 불국토가 시작되는 곳이라 믿었다.

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그 어의면에서 고찰할 때 '도살'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곧 동명(同名)동의(同意)의 회생(回生)노래인 것이며, 불교 수입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말인데 후에 한자를 차용하여 그것을 '도술'이라고 표기했을 뿐이라고 보기도 했다. 또 이 「도술가」는 유리왕대의 「도술가」와는 다른 노래이며 특히 "미륵좌주라는 말은 미륵세존이나 미륵보살과 같은 순(純)불교적 표현이 아니고, 낭(郎)·불(佛) 융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 독특한 용어이며, 화랑의 고유한 신(神) 관념에다 불교의 화생(化生)적인 미륵사상을 융화시킨 표현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와 달리 「도술가」는 「산화가」에 앞서서 가장된 서사적(序詞的) 노래이며, 의식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선 「도술가」보다 「산화가」에 더욱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동시에 「도술가」는 치리가(治理歌)적 성격과 주가(呪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실력력을 얻고 있다고 이해되어 있다. 특히 주가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향가 자체가 '왕왕 천지 귀신을 감동 시킴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往往能感

動天地, 鬼神作非--]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일연은 이 「도술가」가 불리워지는 상황을 "임금 계신 누각(龍樓)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푸른 구름에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은근하고 정중한 곧은 마음의 시킴이니/ 멀리 도술전의 부처님을 맞이하라"는 7언 4구의 한시를 덧붙이고 있다.

일연은 「산화가」가 번다하여 신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월명의 노래를 조목 명에서 「도술가」라고 하여 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도술가」를 「산화가」라고 일컫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비정하고 별도의 「산화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문장이 번다하여 신지 않는다고 한 「산화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종래 연구에서처럼 '상단배송' 의식의 계승(「산화가」)을 한 뒤에 「산화락」(散花落)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추해 보면 상단배송의 의식 계승이 「산화가」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두 해'의 괴변'을 물리칠 때 다른 인도승이 부른 것도 '꽃을 뿌리는 노래'였다는 점에서 '꽃'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동시에 '미륵좌주를 모셔라'는 이 명령어 내지 지시어도 꽃과 미륵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묻

게 된다. '예쁜 꽃' [善花]으로 장식한 화랑(花郎)과 원화(源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떠난 누이를 보내는 노래

향가의 내용면에서 보면 먼저 떠난 누이를 보내는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총담사의 「찬기파랑가」와 함께 향가 중 백미로 이해되고 있다. 현전하는 다수의 신라 향가는 붓다를 찬탄[佛讚]하는 데에서 기원했다는 견해가 있다. "삶과 죽음의 길은(生死路隱)/ 여기 있음에 두려워지고(此有阿米次儂伊遣)/ 나는 간다는 말도(吾隱去內如辭此都)/ 못다 이르고 갔느냐?(毛如云遣去內尼此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於內秋察早隱風未)/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此矣彼矣浮浪落尸葉如)/ 한 가지에 나서(一等隱枝良出古)/ 가는 곳을 모르는 구나(去奴隱處毛冬乎丁)/ 아아, 미타찰에 만나볼 나는(阿也 彌陀刺良逢乎吾)/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道修良待是古如)." 월명은 승려의 신분으로 이 시를 지었다. 그는 출가 전에 여동생을 두고 있었다. 그는 동생을 떠나 출가했고 재가에 있던 동생은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제망매가」는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인식을 보여주는 순수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노자'와 피리소리와 달을 매개하는 '향'이 산 자와 죽은 자, 인간과 자연, 지상과 천상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 결국 일연은 월명을 대신하여 그가 못다 부른 노래를 시로 형상화하여 다시 부르고 있다.

신라 향가는 내용상으로는 민요계 향가와 사뇌가계 향가로 구분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초기의 4구체에서부터 최종 완성형인 10구체로, 그리고 사뇌가인 향가로 발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전 향가의 몇몇 맥락을 고려해볼 때 민요계 바탕으로 하여 점차 개인 창작시로 발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가장 최종적인 형태로 알려진 10구체는 6세기에 창작된 첫 작품인 「해성가」로부터 균여의 「보현심(종)원(왕)가」가 지어진 10세기까지 활발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2세기에 창작된 「도이장가는 10구체의 마지막 장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0구체 향가에서 낙구(落句, 혹은 隔句·後句)의 첫머리는 갑탄사로 시작된다. 이것은 후대에 발생한 시조의 종장(終章) 첫 구에 흔히 나타나며, 가사의 낙구에 도 이러한 형식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향가의 형식은 시조나 가사의 후대 시가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설사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더라도 기

〈삼국유사〉에 총 14편 향가 전해져

당대 신앙·민심 담아 널리 불려져

존 형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어느 시기에 세 가지 형식이 공존하기까지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두와 향찰을 빌어 표기한 이들 신라 향가에서 '번역'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옮기는 과정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향찰로 표기한 균여 향가를 한자로 번역한 최행구의 한역 향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모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양주동, 『고기연구』(일조각, 1975).
- 김민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고영성, 『한국불학사: 신라시대편』(연기사, 2005).
-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 각주) 신라 향가 14수 가운데서 서정성이 깊어 투영되어 있는 月明師의 「祭亡妹歌」는 忠談師의 「讚耆婆郎歌」와 함께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